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7, pp.237-268
<https://doi.org/10.29212/mh.2025..137.23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해방 이후 민영구의 대한민국 해군 참여와 활동

김민호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목 차
1. 머리말
 2. 대한민국 해군 참여
 3. 지남호 인수단에서 활동
 4. 6·25전쟁 참전
 5. 해군사관학교 교장
 6. 맺음말

초 록 이 글은 한국광복군 출신 민영구가 해방 이후 대한민국 해군에서 수행한 활동과 역할을 정리한 것이다. 1948년 국내로 환국하여 해군에 입대하게 되는 과정부터 한국의 첫 원양어선인 지남호 인수단에서의 활동, 6·25전쟁에 참전하여 수행한 활동과 역할,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교장으로서의 활동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민영구가 해군에서 펼친 활동의 실상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민영구가 해군에서 펼친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조사·분석하였다. 회고록·해군사관학교 자료집·해군역사기록관리단 자료집·6·25전쟁사 자료집 등을 참고하였다. 이들 자료에는 민영구의 활동을 증명해 줄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자료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정보

와 사실은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였다. 그 결과 해방 이후 민영구가 해군에서 수행한 활동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독립운동가 민영구의 해방 이후 활동이 가지는 특별함이 있다. 그것은 광복군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해군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민영구는 해군에서 활동하며 부산경비부사령관·해군본부 함정국장·작전참모부장·서해전대 사령·주미대사관 해군무관·해군사관학교 교장 등을 지냈다. 광복군에서 국군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보여주는 인물, 바로 이점이 민영구에 대한 특별함을 더한다고 할 수 있다.

민영구는 광복군에서 국군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민영구와 같은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필수적이다. 이것이 국군의 인적(人的) 정통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광복군과 오늘날 국군의 관계가 뚜렷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Key Word) : 민영구, 한국광복군, 국군, 국군의 정통성, 대한민국 해군

원고투고일 : 2025. 09. 24. 심사수정일 : 2025. 11. 28. 게재확정일 : 2025. 12. 15.

1. 머리말

민영구는 독특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독립운동가의 자제로 태어나 중국에서 항해사·선장으로 활동하면서 중일전쟁에 참전하여 일본군의 해상 침략을 저지했던 경험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운동가 가운데 항해사·선장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한국광복군에서 활동한 인물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독립운동가 중에서 선장과 군인으로 활동한 인물은 민영구가 유일하다.

이러한 민영구가 가지는 특별함이 또 있다. 그것은 광복군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해방 이후 대한민국 해군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해방 이후 국내로 환국한 광복군 출신들은 대한민국 국군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해방 이전 각자의 군사 경력에 따라 육·해·공군에 입대하여 국군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부분 육군에 입대하였고, 공군에 참여한 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해군에 참여한 자는 민영구가 유일하다.¹⁾ 이러한 민영구는 해군에서 활동하며 부산경비부사령관·해군본부 함정국장·작전참모부장·서해전대 사령·주미대사관 해군무관·해군사관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며 역량을 발휘하였다. 광복군에서 국군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보여주는 인물, 바로 이점이 민영구에 대한 특별함을 더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민영구는 특이한 경력과 활동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다. 1919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1948년 환국할 때까지 여러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관련 자료들을 거의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영구

1) 김민호, “한국광복군 출신의 대한민국 국군 참여와 역할”, 『군사』 125, 2022, 91~103쪽.

를 주목한 첫 연구는 그의 상선 활동을 다룬 것이었다.²⁾ 이를 통해 민영구가 중국 상선회사에서 항해사·선장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민영구에 대한 관심은 그의 독립운동 활동을 조명한 연구로 이어졌다.³⁾ 이를 통해 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전개했던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광복군·주화대표단 활동 등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민영구가 해방 이후 대한민국 해군에서 전개한 활동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가 해군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⁴⁾, 구체적인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전무하다.

이 글은 민영구가 해방 이후 대한민국 해군에서 전개했던 활동과 역할을 밝혀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민영구가 1948년 환국하여 해군에 입대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한국의 첫 원양어선인 지남호 인수단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와 인수 과정을 조명해 볼 것이다. 또한 해군 지휘관으로서 6·25전쟁에 참전하여 수행한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도 밝혀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해군사관학교 교장으로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고찰할 것이다.

2) 김재승, “愛國志士 閔泳玖 船長의 中國上船에서의 活躍”, 『해양평론』, 진망, 2006, 173~196쪽.

3) 김민호, “민영구의 在中獨立運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5, 353~392쪽.

4) 해군사관학교, 『(大韓民國) 海軍士官學校史; 1946~1981』, 1981, 578쪽;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편찬위원회편,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2, 374쪽; 김민호, “한국광복군 출신의 대한민국 국군 참여와 역할”, 103·107·117쪽.

2. 대한민국 해군 참여

해방 이후 국내로 돌아온 민영구는 대한민국 해군에 참여하였다. 한국 최초의 원양어선인 ‘지남호’ 인수단에 참여하여 인수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6·25전쟁 시에는 부산경비부사령관으로서 북한군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1951년 12월에는 서해전대 초대 사령에 임명되어 서해안 일대의 도서 방어·경비작전을 지휘하여 다대한 성과를 올렸다. 이후 해군사관학교 교장을 맡아 해군 장교 육성을 책임졌다.

민영구는 1948년 5월 9일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환국하였다. 1919년 중국으로 망명한 이래 29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오랜 망명 생활로 국내에 기반이 없었던 민영구는 큰집 형님인 민영진(閔永珍)의 집에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다.⁵⁾

민영구가 국내에 들어와서 처음 활동을 전개한 곳은 조선민족청년단이었다. 조선민족청년단은 광복군 참모장과 제2지대장을 역임했던 이범석(李範奭)이 1946년 10월 조직한 청년단체이다.⁶⁾ 1946년 6월 국내로 환국한 이범석은 혼란한 정치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청년운동을 실시하겠다고 하며 조선민족청년단을 조직하였다.⁷⁾ 이범석은 수원의 중앙훈련소를 비롯한 전국에 49개의

5) 민중식 메일 인터뷰, 2024년 11월 28일. 민영구와 가족들은 1948년 5월 귀국 후, 민영구가 해군에 입대하는 그해 11월까지 큰집인 민영진의 집(남산 아래 적십자 병원 자리)에 거주했다고 한다. 당시 민영진은 남산 인근에서 ‘민내과’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로, 중국에서 민영구와 가족들이 귀국할 때 귀국 비용으로 100원을 보내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6) 후지이 다케시, “족청·족청계의 이념과 활동”,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49~53쪽.

지역훈련소를 설치하여 청년 단원들을 교육·훈련 시켰다. 체계적인 교육 내용과 역량 있는 강사진을 통해 총 17,0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30여 명의 국회의원을 양성해 내는 등 전국적 규모의 유력 단체로 성장시켰다.⁸⁾

조선민족청년단에는 이범석과 관계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그중에는 광복군 출신들도 있었다. 노태준·안춘생·송면수·이도순·조일문·이준식·유해준·정일명·장준하·이재현 등이 그들이다.⁹⁾ 이들은 광복군에서 이범석과 함께 활동했던 인물들로, 조선민족청년단의 이사와 전국위원·중앙단부의 핵심 간부를 맡고 있었다.

민영구가 조선민족청년단에서 활동하게 된 것도 광복군 경력과 이들과의 관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민족청년단 중앙단부의 부단장과 훈련부장을 맡고 있던 이준식과 안춘생은 민영구와 광복군에서 활동할 당시부터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관계였다.¹⁰⁾

하지만 민영구가 조선민족청년단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민중식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민영구는 조선민족청년단 단장인 이범석을 가까이서 보좌하였다고 한다.¹¹⁾ 이로 보아 민영구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범석의 측근으로 활동하며 조선민족청년단에 관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7) 김주성, “미군정기 朝鮮民族靑年團의 조직과 활동 : 미군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9~10쪽.

8) 후지이 다케시, “족청·족청계의 이념과 활동”, 111~113쪽 ; 김주성, “미군정기 朝鮮民族靑年團의 조직과 활동 : 미군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17~26쪽.

9) 이현희, 『한국독립운동증언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295쪽 ; 후지이 다케시, “족청·족청계의 이념과 활동”, 53~64쪽.

10) 민중식 메일 인터뷰, 2024년 11월 28일. 민중식은 민영구가 광복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할 당시부터 친분이 있었던 인물로 안춘생·이준식·이재현·박영준·조시원 등을 언급하였다.

11) 민중식 메일 인터뷰, 2024년 11월 28일.

이처럼 조선민족청년단에서 활동하던 민영구는 1948년 말경 대한민국의 해군에 입대하였다. 민영구가 해군에 입대하게 되는 자세한 경위는 파악할 수 없으나, 손원일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원일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해군창설을 주도한 인물로, 당시 해군 총사령관을 맡고 있었다.¹²⁾

손원일이 민영구에게 해군 입대를 권유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민영구와 손원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민영구와 손원일은 공통점이 있었다. 하나는 독립운동가 집안의 장남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항해학을 전공하고 항해사로 활동했다는 점이다. 손원일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초대 부의장을 역임한 손정도(孫貞道)의 장남으로, 민영구와 같은 나이였다. 1921년 부친이 활동하고 있는 중국 길림지역으로 망명한 후, 그곳의 원광중학교를 졸업하였다. 1927년에는 중국 상해에 위치한 중앙대학교 항해과에 입학하여 항해술을 익혔다.¹³⁾ 이후 해방이 될 때까지 독일의 아메리카라인 상선을 비롯하여 초상국의 연안여객화물선의 부선장 겸 항해사, 동화양행의 천진지점장·상해지사장으로 활동하였다.¹⁴⁾ 민영구와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의 자제로서, 항해학교를 졸업하고 항해사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2) 해군사관학교박물관편, 『(탄신100주년) 손원일 제독 특별전 기념도록 :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 유품으로 보는 해군의 발자취』, 해군사관학교박물관, 2009, 112쪽.

13) 홍은혜 엮음, 『(손원일 제독 회고록) 우리들은 이 바다 위해』, 가인기획, 1990, 85~89쪽; 오진근·임성채 공저, 『(해군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69~70쪽; 해군사관학교박물관편, 『(탄신100주년) 손원일 제독 특별전 기념도록 :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 유품으로 보는 해군의 발자취』, 111~112쪽; 홍은혜, 『은혜의 항해 : '해군의 어머니' 홍은혜의 인생이야기』, 토기장이, 2010, 86~87쪽.

14) 홍은혜 엮음, 『(손원일 제독 회고록) 우리들은 이 바다 위해』, 92~124쪽; 해군사관학교박물관편, 『(탄신100주년) 손원일 제독 특별전 기념도록 :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 유품으로 보는 해군의 발자취』, 111쪽; 홍은혜, 『은혜의 항해 : '해군의 어머니' 홍은혜의 인생이야기』, 87~88쪽.

이러한 공통점은 민영구와 손원일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었다. 이들은 상해에서 항해학교를 다닐 때, 만남을 가졌던 것 같다. 독립운동가의 아들이자 동갑내기 그리고 항해과 학생이라는 점에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사이가 되었던 것이다.¹⁵⁾ 이처럼 이들은 중국에서 활동할 때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였고, 항해 분야에 근무하며 두루 통하는 점이 많은 관계였다. 경험 많고 역량 있는 군사간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해군창설 초기에, 중국에서 선장과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민영구라는 존재는 손원일이 반드시 영입해야 할 대상이었다.¹⁶⁾

1948년 11월 4일, 민영구는 해군특별교육대에 입교하였다. 해군특별교육대는 해군사관학교령 제17조에 의거 하여 사관학교 내에 설치된 단기 장교 양성 기관이다.¹⁷⁾ 해방 직후, 해군은 장교 경력자가 없던 관계로 타군에 비해 간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¹⁸⁾ 1946년 1월 17일에 해군사관학교가 개교하여 해군 장

15) 오진근·임성채 공저, 『해군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 71~72쪽. 민영구는 손원일을 만날 때마다 상해 인성학교 교장이었던 손정도의 안부를 묻곤 했다고 한다.

16) 해방병단 창설 초기 손원일은 유능한 중견 인물의 참여와 인재 양성을 강조하였다(김준태, “開校二〇週年을 맞은 海軍士官學校”, 『해군』 152, 해군본부 정훈감실, 1966, 49~50쪽).

17) 해군특별교육대는 1948년 6월 25일 제1기생의 입교로 시작되었다. 1968년에 항해 등 전투병과 장교를 양성하게 되어 ‘간부후보생’(OCS : Officer Candidate School)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고, 1972년 ‘사관후보생’(OCS)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해군과 국가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해군사관학교, 『(大韓民國) 海軍士官學校史 ; 1946~1981』, 58·85·606쪽 ; 임성채·김용진·김희철·박기연,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12, 13쪽).

18) 임성채·강병춘, 『대한민국 해군 창군사』,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16, 76쪽. 한국인 중 유일하게 해방 이전에 해군 장교로 복무했던 인물은 이용운이다. 그는 도쿄 고등상선학교 졸업 후 일본해군에 입대하여 산고마루(三江丸) 함장을 역임하였다. 해방 이후 해군특교대 제4기로 입대하여 중령으로 임관하였고, 제4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냈다(임성채, “미국의 6·25전쟁 전략이 한국 해군력에 미친 영향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87쪽).

교들을 양성해 냈지만, 당시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만으로는 부대를 이끌어갈 수 없었다.¹⁹⁾ 이에 해군에서는 해군특별임용(특임) 또는 해군특별교육대 제도를 마련하여 장교 수급 문제 해결에 나섰다.²⁰⁾ 입교 자격을 병조장(兵曹長) 및 하사관 또는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두어 일반인 중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해군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²¹⁾ 지원자 대부분은 과거에 한국·중국·일본의 해원양성소를 졸업한 자들로, 항해사·기관사 등 고유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²²⁾

중국 상해에서 만국항해학교(萬國航海學校)를 졸업한 민영구는 제3차 해군특별교육대에 입교하였다. 민영구가 제3차 해군특별교육대에 입교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제3차 해군특별교육대가 '경리와 기타 분야'의 전문직들이 입교하는 기수였기 때문이다.²³⁾ 민영구는 이미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광복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경리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다.²⁴⁾ 그만큼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였다.

이곳에서 민영구는 장교 후보생으로서 단기 교육과정을 이수해 나갔다. 동료 27명과 함께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 군사 지식을 습득하고, 장차 장교로서 지녀야 할 덕성을 익혔다. 그 결과 1949년 1월 25일, 83일간의 제3차 해군특별교육대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²⁵⁾

19) 해군사관학교, 『(大韓民國) 海軍士官學校史 ; 1946~1981』, 58쪽.

20) 임성채·김용진·김희철·박기연,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13쪽.

21) 해군사관학교, 『(大韓民國) 海軍士官學校史 ; 1946~1981』, 85쪽.

22) 임성채·강병춘, 『대한민국 해군 창군사』, 75~76쪽.

23) 해군사관학교, 『(大韓民國) 海軍士官學校史 ; 1946~1981』, 85쪽.

24) 김민호, “민영구의 在中獨立運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0, 361·371~380쪽.

25) 해군사관학교, 『(大韓民國) 海軍士官學校史 ; 1946~1981』, 85·319·606쪽.

제3차 해군특별교육대를 수료한 민영구는 1949년 2월 1일 임관하였다. 임관 당시 계급은 소령이었다.²⁶⁾ 해군특별교육대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들에게는 과거 경력과 나이에 따라 장교 계급이 부여되었는데,²⁷⁾ 민영구는 해방 이전 중국에서의 선장과 광복군 경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대한민국 해군 소령으로 임관한 민영구는 이후 해군의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3. 지남호 인수단에서 활동

해군에 입대한 민영구의 초창기 활동 가운데 특별한 경험이 있다. 태극기를 게양하고 태평양을 횡단·항해한 최초의 한국 선박인 ‘지남호(指南號)’ 인수 임무에 참여한 것이 그것이다. 1949년 10월, 민영구는 지남호 인수단에 선발되어 동료 10여 명과 함께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박을 인도해 오는 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지남호는 한국의 첫 원양어선으로 알려져 있다. 본래 명칭은 ‘워싱턴호’로, 미국무성 수산 야생동물국 산하에 소속되어 시애틀(Seattle)에서 시험선으로 활동하고 있던 선박이었다.²⁸⁾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지남호’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²⁹⁾ 이러한 워싱턴호가 한국 정부에 인수되는 계기가 있다. 그것은 주한경제협조처(駐韓經濟協調處)의 권고 때문이었다.

26) 오진근·임성채 공저, 『(해군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 71쪽.

27) 임성채·강병춘, 『대한민국 해군 창군사』, 76쪽.

28) 해군본부, 『해군일화집』 5, 1997, 23쪽.

29) 지남호(指南號)라는 이름은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지은 것이다. “남태평양 바다에 나가 원양 조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지녔다(해군본부, 『해군일화집』 5, 23쪽 ; 임성채·강병춘, 『대한민국 해군 창군사』, 197쪽).

주한경제협조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ECA)는 1949년 1월 1일 미국 정부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계획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설립 목적은 한국 정부가 독립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국의 기본 정책을 한국에 실행하는 데 있었다. 주요 임무는 한국 내에서 미국의 원조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이었다.³⁰⁾ 이러한 주한경제협조처는 한국 정부에 워싱턴호의 인수가 한국의 원양어업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주한경제협조처 자금 23만 9,000달러를 지원받아 워싱턴호의 인수를 추진하게 되었다.³¹⁾

본래 워싱턴호의 인수는 교통부 해사국에서 맡았었다. 한국 정부는 교통부 해사국에 선박의 인수 임무를 부여하고 인수단원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인원들은 배를 타고 부산을 출발하여 일본 요코하마(横浜)를 거쳐 미국으로 향할 계획이었다. 당시 한국과 미국 간 항공기 이용이 어려워 요코하마에서 미국행 화물선을 타고 이동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인수단원들이 요코하마에 도착하여 미국행 화물선을 기다리는 동안 문제가 발생하였다. 몇몇 인수단원들이 도박으로 여비를 모두 잃고, 싸움까지 일으킨 것이었다. 결국 이 소식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인수단원들에게는 강제귀국 조치가 내려졌다.³²⁾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선박 인수 임무를 해군에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직접 신성모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하여 해군으로 하여금 선박 인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³³⁾ 이에

30) 이현진, “제1공화국기 美國의 對韓經濟援助政策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42~43쪽.

31) 해군본부, 『해군일화집』 5, 23쪽 ; 임성채 · 강병춘, 『대한민국 해군 창군사』, 196쪽.

32) 임성채 · 강병춘, 『대한민국 해군 창군사』, 196~197쪽.

33) 해군본부, 『해군일화집』 5, 23쪽 ; 임성채 · 강병춘, 『대한민국 해군 창군사』, 197쪽.

따라 해군에서는 선박 인수 임무를 수행할 인수단원 모집에 나섰다. 선박 인수단원 모집에는 뜻있는 해군 장교들이 지원하였고, 민영구도 지원을 결정하였다.

인수단원의 선발은 국방부 장관인 신성모가 주관하였다. 신성모는 직접 면접시험에 참여하여 인수단원 선발에 나섰다. 민영구는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예상 질문을 숙지한 후에 면접시험을 치렀다.³⁴⁾ 그 결과 최용남 중령(인수단장)·최효용 소령(선장)·한갑수 중령(기관장)·박병태·최동화·양해경·이민석·문치환·이웅래 소령 등과 함께 인수단에 선발될 수 있었다.³⁵⁾

인수단에 선발된 민영구와 인수단원들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³⁶⁾, 출국 준비에 나섰다. 이들의 목적지는 미국 시애틀이었다. 그곳에 인수할 선박인 ‘워싱턴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영구와 인수단원들은 1949년 11월 16일 노스웨스트 항공편으로 서울을 출발하여 도쿄(東京)와 알래스카(Alaska)를 거쳐 17일 오후 6시 경 시애틀에 도착하였다.³⁷⁾

시애틀에 도착한 민영구와 인수단원들은 ‘워싱턴호’의 인수 준비에 들어갔다. 1949년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인수식에 참여하였고, 정비 작업도 마쳤다. 다음날인 19일에는 시애틀 외항에서 시운전(試運轉)도 시행하였다.³⁸⁾

34) 면접 당시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배를 인수할 자신이 있느냐?”라는 단 한 가지 질문만 물어 보았다고 한다(해군본부, 『해군일화집』 5, 23쪽).

35) 해군본부, 『해군일화집』 5, 24쪽 ; 임성채·강병춘, 『대한민국 해군 창군사』, 197쪽.

36) 이승만 대통령은 인수단원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들어오는 원양선의 인수 요원으로 선발된 만큼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임성채·강병춘, 『대한민국 해군 창군사』, 197쪽).

37) 해군본부, 『해군일화집』 5, 24쪽 ; 임성채·강병춘, 『대한민국 해군 창군사』, 197쪽.

38) 해군본부, 『해군일화집』 5, 24쪽.

그리고 1949년 11월 20일 오전 9시에 ‘워싱턴호’를 이끌고 한국으로 출발하였다. 한국으로 향하는 길은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 긴 여정이었다.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그동안 ‘워싱턴호’를 운영했던 미국인 선장과 기관장·통신사도 동행하였다.³⁹⁾

한국으로 향하는 길은 쉽지 않았다. 11월 27일에 도착한 하와이 호놀룰루(Honolulu)에서는 기관실 바닥에 버려진 석탄과 오물을 퍼내야 했고, 12월 10일경 도착한 괌(Guam)에서는 초대형 태풍을 만나 선박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로프를 보강하는 정비 작업에 전력을 기울여야 했다.⁴⁰⁾ 뿐만 아니라, 동행한 미국인 선원의 판단 착오로 선박 운행에 어려움도 겪었다. 인수단은 1949년 12월 14일 괌을 출발하여 태풍의 뒤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하지만 12월임에도 불구하고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선박이 전진하기가 어려웠다. 그러자 미국인 선원이 선박을 돌려서 가자고 주장하였고, 그의 주장대로 선박을 돌렸으나 앞바람이 물려 극심하게 요동치며 물만 가득 차 버린 것이었다.⁴¹⁾

이후 인수단원들은 태풍의 진로와 파도 방향 등을 고려하여 항로를 바로잡았다. 이들은 일본 나카노시마(中之島)를 거쳐 1949년 12월 22일 오전 11시 30분경 무사히 부산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⁴²⁾ 미국 시애틀을 출발한 지 32일 만에 한국해군이 선박을 이끌고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한 것이다.

이처럼 민영구는 지남호 인수단에 선발되어 선박 인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자료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활동은

39) 해군본부, 『해군일화집』 5, 24쪽 ; 임성채·강병춘, 『대한민국 해군 창군사』, 198쪽.

40) 해군본부, 『해군일화집』 5, 24~26쪽 ; 임성채·강병춘, 『대한민국 해군 창군사』, 198~199쪽.

41) 해군본부, 『해군일화집』 5, 26쪽.

42) 해군본부, 『해군일화집』 5, 26~27쪽 ; 임성채·강병춘, 『대한민국 해군 창군사』, 199쪽.

없지만, 인수단의 일원으로서 선박의 운행과 정비에 힘을 보탠 것은 분명하다. 그 결과 선박 인수라는 임무를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었다.

4. 6·25전쟁 참전

가. 부산경비부사령관으로 활동

민영구는 1950년 6·25전쟁에 참전하여 군인으로서 책임을 완수하였다. 부산경비부사령관으로서 북한군의 침략을 막아내는 데 노력을 기울였고, 1951년 12월에는 서해전대 초대 사령에 임명되어 서해안 일대의 도서 방어·경비작전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켜낼 수 있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해군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도약을 준비해 나갔다. 그 결과 총병력 5,900여 명과 함정 70여 척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진해를 비롯한 국내 주요 항만에 해군기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⁴³⁾ 부산도 이러한 중요한 해군기지 가운데 하나였다.

지남호 인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민영구는 1949년 12월 24일부로 부산경비부사령관으로 발령받았다.⁴⁴⁾ 지남호를 인수하여 한국으로 돌아온 지 2일 만이었다. 민영구가 부임하게 된 부산

43) 김준태, “開校二〇週年을 맞은 海軍士官學校”, 51~52쪽.

4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2005, 721쪽; 임성채·김용진·김희철·박기연,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138·195~196쪽;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101·103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통계자료집』, 2023, 71쪽.

경비부는 인천·목포·목호·포항·군산·진해 등에 설치된 해군 기지 가운데 하나로, 경남 일대의 해안경비와 해상수호를 담당하는 곳이다.⁴⁵⁾ 본래 명칭은 ‘부산해군기지’로, 1950년 4월 15일, 대통령령 제100호 해군기지 설치령 제7조 제1항에 의해 기지에서 ‘경비부’로 승격되면서 ‘부산경비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⁴⁶⁾ 민영구는 이러한 부산경비부의 총책임자인 사령관을 맡아 기지와 해상의 방어·경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던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략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6·25전쟁이다. 이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3년여 동안 계속 이어졌다.⁴⁷⁾ 그동안 남과 북의 많은 군인들이 참전하여 38선을 넘나들면서 전투를 벌였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해군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미국 해군과 협력·협조를 통해 동·서·남해안 각 해상에 걸친 경비작전·호송작전·기만작전·수송작전에 돌입한 것이다.⁴⁸⁾ 이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도 본격적으로 6·25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민영구도 대한민국 해군의 지휘관으로서 6·25전쟁에 참전하였다. 북한군의 침략을 저지하고 항만을 방어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 것이다. 민영구는 부산항 사수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부산항은 해방 이전부터 일본이 형성했던 해상물류시스템이 구축된 곳이었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미국과 유엔군은 부산항을 해

4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717~718쪽.

4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719~720쪽.

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1(고지쟁탈전과 정전협정 체결), 2013, 693쪽.

48) 김준태, “開校二〇週年을 맞은 海軍士官學校”, 52쪽.

상·육상 수송의 교두보로 삼았다.⁴⁹⁾ 일본에 위치한 미군기지의 병력과 물자를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 항만시설을 갖춘 곳이자, 일본에서 생산한 군수물자의 수송을 처리할 수 있는 병참 체계가 구축된 곳이 부산항이었기 때문이다.⁵⁰⁾ 그만큼 부산항은 함정들의 출입이 많은 곳이었고, 북한군의 기뢰부설 가능성과 게릴라 침투도 높은 곳이었다.⁵¹⁾ 이처럼 부산항은 전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이곳의 경비를 책임지는 민영구도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민영구는 북한군의 남침을 막고 부산항을 지키기 위한 작전에 참여하였다. ‘동해안 방어 및 봉쇄작전’이 그것이다. ‘동해안 방어 및 봉쇄작전’은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부산에 기지를 둔 제2정대 함정을 중심으로 한국해군이 동해안에서 실시한 방어 및 봉쇄작전을 말한다.⁵²⁾ 민영구는 이 작전에 목호경비부·포항경비부·제2정대와 함께 참여하여 북한 함정에 의한 게릴라 부대 상륙을 저지하고, 유엔해군과 더불어 동해안의 해상통제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⁵³⁾

49) 김윤미, “한국전쟁기 유엔군 군수사령부 편성과 부산항-1950년 해상물류시스템 구축 과정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70, 2022, 24쪽. 부산항은 개항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되었고, 부두 확장과 철도 공사 등의 시설개선도 이루어졌다. 이는 해방 이후 미국이 주요 물자를 운반하는 하역항으로 활용하게 되는 기반이 되었다(이상호, 『6·25전쟁 초기 전쟁 전략의 변화와 군수지원 체계의 구축』, 『군사』 1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 222~223쪽).

50) 김윤미, “한국전쟁기 유엔군 군수사령부 편성과 부산항-1950년 해상물류시스템 구축 과정을 중심으로-”, 25~28쪽.

51) 임성채, “미국의 6·25전쟁 전략이 한국 해군력에 미친 영향 연구”, 58쪽.

5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2006, 677쪽.

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677~681쪽.

민영구는 부산경비부사령관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고 호송하는 임무도 수행하였다. ‘이승만 대통령 호송작전’이 그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호송작전’은 1950년 7월 1~2일에 목포에서 부산까지 이승만 대통령 일행을 호송한 작전을 말한다.⁵⁴⁾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점령당하자, 이승만 대통령과 일행은 부산으로 이동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일행은 부산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다. 혹시 모를 게릴라들의 공격을 염려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 대신, 해군 함정을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⁵⁵⁾

1950년 7월 1일, 이승만 대통령 일행은 목포경비부 제3정대 소속의 YMS-514정(길주)을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민영구도 대통령 일행이 부산으로 온다는 소식을 보고받았다. 민영구는 즉시 경남도지사에게 연락을 취하고, 부대 경비를 철저히 하였다.⁵⁶⁾

다음날인 7월 2일 오전 11시, 이승만 대통령 일행을 태운 YMS-514정이 무사히 해군 부산보급창 부두에 도착하였다. 당시 부두에는 민영구를 비롯하여 경남도지사 등 소수의 인원만 나와 있었다. 민영구는 이승만 대통령 일행을 맞아 일행이 부두를 떠날 때까지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였다.⁵⁷⁾

나. 서해전대 사령으로 활동

민영구는 6·25전쟁 중 서해안 경비작전을 책임지는 지휘관으로도 활약하였다. 새롭게 편성된 서해전대의 초대 사령을 맡게 된

5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698쪽.

5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698쪽.

56) 임성채·김용진·김희철·박기연,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195~196쪽.

5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698~699쪽.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해군과 유엔해군의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이끌었다.

1950년 7월 30일까지 부산경비부사령관으로 활동하던 민영구는 해군본부 참모로서 활동을 이어갔다.⁵⁸⁾ 1951년 9월 26일부로 해군본부의 제6대 함정국장으로 임명된 것이다.⁵⁹⁾ 함정국은 해군 소속 함선의 건조·수리·보선·기타 함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이다.⁶⁰⁾

민영구가 함정국장으로 임명된 데에는 그의 과거 경력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해방 이전 중국에서 활동할 당시, 만국항해학교를 졸업하고 상선회사의 항해사와 선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다. 선박에 대한 이해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선박무선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⁶¹⁾ 그만큼 선박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던 인물이었다. 이러한 민영구는 6·25전쟁 기간 중 해군본부의 함정국장을 맡아 함선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해군본부 함정국장으로 활동하던 민영구는 다시 경비작전을 책임지는 지휘관에 임명되었다. 1951년 12월 23일부로 새롭게 편성된 서해전대의 초대 사령에 임명된 것이 그것이다.⁶²⁾ 서해전대는 서해에서 작전 중인 함정을 통합하여 창설한 부대이다.⁶³⁾ 민영구는 1952년 5월 4일까지 서해전대를 이끌며 서해안 해역에서의 도서 방어·경비작전을 지휘하였다.

58) 민영구의 1950년 7월 30일부터 1951년 9월 25일까지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5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통계자료집』, 70쪽.

60) 「해군본부직제」, 대통령령 제1130호, 1956년 2월 20일 제정, 시행 1956년 2월 20일.

61) 김민호, “민영구의 在中獨立運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0, 362~365쪽.

6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후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 2012, 659쪽 ; 임성채·김용진·김희철·박기연,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466쪽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1125쪽.

63) 임성채, “미국의 6·25전쟁 전략이 한국 해군력에 미친 영향 연구”, 55쪽.

민영구가 서해전대의 초대 사령으로 부임하게 된 계기가 있다. 그것은 서해안 해역에서 한국해군과 영국해군의 갈등 때문이었다. 1951년 10월 이후, 북한군은 서해안 일대에 진지를 구축하여 국군이 점령한 도서 지역에 위협을 가하였다. 병력 증원을 통해 도서 지역을 빼앗기 위한 기습공격을 빈번하게 시도한 것이다. 이에 한국해군은 유엔해군과 연합하여 북한군의 침투를 막기 위해 경비작전을 강화하고, 기뢰를 제거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 나갔다.⁶⁴⁾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영국해군과 마찰이 일어났다. 당시 서해안 일대의 해상봉쇄작전 및 경비작전은 영국해군이 주도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29일 참전을 결정한 영국해군은 전쟁 기간 동안 주로 서해안 일대에서 활동을 펼치며 전략 도서 방어에 노력을 기울였다.⁶⁵⁾ 그 결과 1950년 7월, 영국해군의 앤드류스(W. G. Andrews) 소장이 서해안지원분대 사령관에 임명되었고, 미 해군을 제외한 모든 유엔해군을 지휘·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⁶⁶⁾ 서해안 전역에서 영국해군이 유엔군 소속 해군을 통솔할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다만, 작전구역에 대해서는 구분이 있었다. 대체로 북위 37도 이북 해역에 대해서는 영국 및 유엔해군이 봉쇄 및 해상작전을 담당하였고, 37도 이남 해역에 대해서는 한국해군이 작전을 관할하는 것이었다.⁶⁷⁾

한국해군은 서해안 일대에서 경비작전을 실행해 나갔다. 그것은 세 단계로 추진되었다. 1951년 10월부터 1952년 3월까지의 ‘탁수

6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 659쪽 ; 임성채·김용진·김희철·박기연,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445쪽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1124쪽.

65) 손규석·조성훈·김상원, 『6·25전쟁과 UN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171쪽.

66) 국가보훈처, 『영국의 6·25전쟁 참전사』, 2016, 207~208쪽.

67) 김종기, “한국전쟁시 해군 군사력의 투사”, 『戰史』 2, 국방군사연구소, 1999, 302쪽 ; 김인승, “6·25전쟁기 서해 해상공방전(海上攻防戰) 연구”, 『한국군현대사연구』 90, 2019, 149쪽.

작전', 1952년 4월부터 12월까지 '충무작전', 1953년 1월부터 3월까지 '금각작전'이 그것이다.⁶⁸⁾

그러나 경비작전 과정에서 영국해군과 문제가 발생하였다. 구체적인 배경은 파악할 수 없으나, 양측의 '작전 지휘권' 문제로 알려져 있다.⁶⁹⁾ 당시 영국해군이 작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해군은 영국 및 유엔해군과 연합하여 경비작전을 수행하고, 적 기뢰 제거·유격부대 지원·정보 수집 활동·해상포격 등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고 수심이 얇은 서해안 일대에서의 작전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한국해군 함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⁷⁰⁾ 또한 전략 도서 확보와 방어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점령은 한국해군이 담당하는 상황이었다.⁷¹⁾ 이러한 작전 과정에 있어서 지휘권의 불분명성은 지휘 계통의 혼란을 가져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위 37도를 기준으로 양측이 연합·단독작전을 병행하면서 혼선과 갈등은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⁷²⁾

68) 임성채·김용진·김희철·박기연,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446쪽;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1124쪽.

6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 659쪽; 임성채·김용진·김희철·박기연,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446쪽;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1125쪽. 6·25전쟁 당시 서해안 해역에서 한국해군과 영국해군의 '작전 지휘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이 문제를 명확히 언급한 연구는 없다. 한국해군과 영국해군 간의 '작전 지휘권' 문제의 규명은 중요하다. 이것이 명확해야만 당시 한국해군과 영국 및 유엔해군이 수행한 각종 단독·연합작전의 성격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70)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1124쪽. 한국해군은 수심이 얇은 서해안에서의 기뢰소해작전과 기뢰부설작전에 대한 교리를 독창적으로 개발하게 되었고, 어선에 의한 기뢰부설 및 소해방법을 고안하여 실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임성채, "미국의 6·25전쟁 전략이 한국 해군력에 미친 영향 연구", 72쪽).

71) 국가보훈처, 『영국의 6·25전쟁 참전사』, 206쪽.

72) 한국해군은 연합작전과는 별도로 전황에 따라 단독작전도 수행하였다. 한국해군은 함정이 고장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작전에 참가하였다. 특히 서해에서는 황해도와 서해 5개 도서의 해역이 주요 작전지역이었다(임성채, "미국의 6·25전쟁 전략이 한국 해군력에 미친 영향 연구", 72~73쪽).

한국해군은 서해안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영국해군과의 갈등이 야기되자, 수습에 나섰다. 그 결과 1951년 12월 23일부로 ‘서해전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초대 사령을 민영구에게 맡겼다. 민영구가 임명된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영국해군과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해군의 의중이 담긴 조치로 여겨진다. 민영구는 중국에서 항해사와 선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능통하였다.⁷³⁾ 또 광복군으로 활동하며 국제정세에 대한 넓은 이해도 가졌다.⁷⁴⁾ 이에 한국해군은 영어와 국제정세에 밝은 민영구로 하여금 영국해군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서해안 경비작전을 이끌 책임자로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해전대 사령에 임명된 민영구는 서해안 해역의 경비작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갔다. 청양도·석도·교동도 인근에서 국군·유엔군 유격대원들의 정보 수집을 위한 기습상륙 작전을 지원하였고, 영국해군과의 연합작전을 통해 북한군 선박을 침몰시키기도 하였다.⁷⁵⁾ 또한 1952년 4월부터 시작된 ‘충무작전’ 때에는 강화도와 옹진반도를 중심으로 장산곶 북방에서 목덕도에 이르는 주요 도서를 경비하는 임무를 지휘하였다. 덕동·해주만 전투와 창린도 탈환 작전을 이끌었으며, 진남포와 오리포 방향의 북한군에게 함포사격을 가하여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백지구의 무장한 북한군과 중공군을 격퇴하는 성과도 올렸다.⁷⁶⁾

이처럼 민영구는 새로 편성된 서해전대의 지휘관으로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서해안 일대에 구축한 북한군의 방어시설을 파괴하고, 기뢰부설을 저지하였다. 또한 국군·유엔군 유격대의

73) 민중식 메일 인터뷰, 2024년 11월 28일.

74) 김민호, “민영구의 在中獨立運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0, 374~375쪽.

75)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1,125쪽.

76)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1,126쪽.

기습상륙을 지원하여 북한군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러한 활동은 국군과 유엔군이 지상전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이후 민영구는 1952년 5월 5일 다시 해군본부 제8대 함정국장으로 부임하며 활동을 이어갔다.⁷⁷⁾

5. 해군사관학교 교장

민영구는 해군사관학교 교장을 맡아 해군 장교 양성을 책임졌다. 교육체계의 개선과 보완에 노력하였고, 직접 순항 훈련에 참여하여 생도들의 해상실습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생도들이 정예 해군 장교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민영구는 1959년 4월 1일 해군사관학교 제9대 교장에 취임하였다. 해군사관학교는 해군 장교 양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생도들에게 군인이 갖추어야 할 전문 지식과 지도자로서 필요한 광범위한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다.⁷⁸⁾ 이러한 사관학교의 교장을 민영구가 맡게 되었다.

민영구의 해군사관학교 교장 부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광복군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해군에 참여하여 해군사관학교 교장에 올랐다는 점이다. 해방 이후 많은 광복군 출신들이 대한민국 국군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해방 이전 각자의 군사 경력에 따라 육·해·공군에 입대하여 국군의 간성을 이루었다. 대부분 육군에 입대하였고, 공군에 참여한 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해군에 참여한 자는 민영구가 유일하

7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통계자료집』, 70쪽.

78) 해군사관학교, 『(大韓民國) 海軍士官學校史; 1946~1981』, 65쪽; 해군사관학교편,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2009, 6쪽.

다.⁷⁹⁾ 민영구는 해군에서 부산경비부사령관·해군본부 함정국장·서해전대 사령·주미대사관 해군무관 등을 지내며 역량을 발휘하였다. 따라서 민영구의 해군사관학교 교장 취임은 광복군 출신이 해군의 장교 양성을 책임짐으로써, 국군의 인적(人的) 정통성 계승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민영구는 해군사관학교 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해군 장교 양성을 위해 힘썼다. 그 가운데 우선적으로 실시한 것이 교육체제와 기본 학기제를 개선한 것이다. 1950년대 중후반부터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적합한 기본 학기제와 교과목 선정을 위한 교과과정 수립이 추진되었다.⁸⁰⁾ 법학통론과 제2외국어 과목이 신설되고, 본격적인 시행령 공포에 앞서 기본 학기제도 시행되었다.⁸¹⁾

그러나 1958년 9월 4일, 대통령령 제1385호로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 정식으로 공포되자, 새롭게 요구되는 사항들이 나타났다. 교장 민영구는 해군사관학교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변화에 대처해 나갔다. 생리학개론(生理學概論) 및 이공학(理工學) 과정 이수에 요구되는 함수론 등의 교과목을 새롭게 제정하였고, 현실에 맞게 기본 학기제의 일부를 변경·시행하였다.⁸²⁾

민영구는 이론과 실습이 조화된 교육을 중요시 여겼다. 민영구의 교장 재임기간 동안 실습 관련 과목들이 개선·확충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연안(沿岸) 실습·공창(工廠) 실습·해병 교육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연안 실습은 본래 함상(艦上) 실습으로, 해군사관학교 초창기부터 교과과정에 편제된 과목이다.⁸³⁾ 민영구

79) 김민호, “한국광복군 출신의 대한민국 국군 참여와 역할”, 91~103쪽.

80) 해군사관학교, 『(大韓民國) 海軍士官學校史 ; 1946~1981』, 212쪽.

81) 해군사관학교, 『(大韓民國) 海軍士官學校史 ; 1946~1981』, 212·238쪽.

82) 해군사관학교, 『(大韓民國) 海軍士官學校史 ; 1946~1981』, 215쪽; 김중선, “한국 해군사관학교 교육과정 변천 분석”,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69쪽.

83) 해군사관학교, 『(大韓民國) 海軍士官學校史 ; 1946~1981』, 238쪽.

는 이러한 함상 실습을 해군사관학교의 교과과정에 부합되도록 연안 실습으로 대체하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공업실습 과목도 공창 실습으로 대체하여 교육을 실행하였다.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험 실습과 응용연구에 비중을 두어 실제 체험 중심의 교육을 시행한 것이다.⁸⁴⁾ 그 결과 생도들은 공창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실제 체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해병 실습 교육을 시행하여 교내에서 교육할 수 없는 보병 기본화기와 지원 화기의 분해결합·사격술 등을 익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⁸⁵⁾

민영구는 재임 기간 중 ‘군기장(軍紀章) 제도’를 시행하여 생도들의 사기(士氣)를 진작시키고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군기장 제도는 당시 생도 대장이던 김상도 대령의 착안으로 시행된 것으로, 모범적인 생도 생활과 내무생활을 하는 생도에게 군기장을 수여하는 것이다.⁸⁶⁾ 군기장을 수여받은 생도는 왼쪽 팔에 금줄의 휘장(徽章)을 달게 되는데, 이것은 우수한 사관생도의 상징이자 명예의 표상이었다. 민영구가 군기장 제도를 시행한 것은 사관생도들에게 자긍심과 애교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여겨진다. 이러한 군기장 제도는 해군사관학교만의 독특한 전통이 되었다.⁸⁷⁾

민영구는 해군사관학교 교장으로서 졸업반 생도들의 순항 훈련을 직접 지휘하기도 하였다. 순항 훈련은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의 4년간 교육을 총결산하는 것으로, 여러 국가를 순방하며 견문을 넓히고 실제 해상에서의 다양한 훈련을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을 의

84) 해군사관학교, 『(大韓民國) 海軍士官學校史 ; 1946~1981』, 238쪽.

85) 해군사관학교, 『(大韓民國) 海軍士官學校史 ; 1946~1981』, 238쪽.

86) 해군사관학교, 『(大韓民國) 海軍士官學校史 ; 1946~1981』, 254쪽.

87) 해군사관학교편,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8쪽.

미한다.⁸⁸⁾ 우방 국가를 방문하여 그곳의 생도들과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 항해 중 발생하는 항해술·사격훈련 그리고 각종 현장 체험 훈련을 비롯한 다양한 전술훈련을 연습하는 기간이다.⁸⁹⁾

1960년 2월 1일, 민영구는 해군사관학교 졸업반 생도들을 이끌고 해상실습에 나섰다. 생도들을 DE-71·DE-72 2척의 구축함에 탑승시키고, 오후 2시에 진해항을 출발하였다.⁹⁰⁾ 실습목적은 앞으로 1개월여간 남지나(南支那) 해역과 서남태평양해역 일대에서 해상 훈련을 시행하는 것이었다.⁹¹⁾ 기항지는 베트남 - 필리핀 - 오키나와였다.⁹²⁾

민영구는 실제 해상에서 각종 훈련을 실행하였다. 훈련은 밤낮으로 이루어졌고, 높은 파도와 멀미로 인해 쓰러지는 생도도 있었다.⁹³⁾ 하지만 출항한 지 4일이 지난 후부터는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훈련에 참여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민영구는 해군사관학교 교장으로서 해군사관학교의 점진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비록 재임 기간은 1년여 남짓으로 길지 않지만, 이 기간 동안 해군사관학교의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생도들의 역량을 증진 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군기장 제도 등을 실시하여 사관생도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특별하고 남다른 성과는 아니지만, 생도 교육의 질적 향상과 내적 충실을 통해 개교 이후 성장을 거듭해 오던 해군사관학교의 기반을 다지는 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88) 해군사관학교, 『(大韓民國) 海軍士官學校史; 1946~1981』, 541~544쪽; 해군사관학교편,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10쪽.

89) 김준태, “開校二〇週年을 맞은 海軍士官學校”, 58쪽.

90) “一日壯途에 遠洋機動訓練團”, 『동아일보』(1960년 2월 2일), ; “八日 『사이공』 到着”, 『동아일보』(1960년 2월 9일).

91) “一日壯途에 遠洋機動訓練團”, 『동아일보』(1960년 2월 2일).

92) 해군사관학교, 『(大韓民國) 海軍士官學校史; 1946~1981』, 543쪽.

93) “八日 『사이공』 到着”, 『동아일보』(1960년 2월 9일).

6. 맺음말

지금까지 민영구가 대한민국 해군에서 전개한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정리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1948년 5월 국내로 환국한 민영구는 대한민국 해군에 입대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 최초의 원양어선인 '지남호' 인수단에 참여하여 인수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6·25전쟁 때에는 지휘관으로서 북한군의 침략을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해군사관학교 교장으로서 정예 해군 장교 육성을 책임졌다.

민영구가 해군에 입대하게 되는 계기는 손원일의 권유에 의해서였다. 민영구와 손원일은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독립운동가 집안의 장남이라는 점 그리고 중국에서 항해학을 전공하고 항해사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공통점은 민영구와 손원일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었고, 민영구가 해군에 입대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1949년 2월 1일, 해군 소령으로 임관한 민영구는 해군의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태평양을 횡단·항해한 최초의 한국 선박인 '지남호' 인수단에 선발되어 인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민영구는 동료 10여 명과 함께 미국 시애틀에서부터 부산까지 선박을 안전하게 이끌고 왔다. 이는 한국해군이 선박을 이끌고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한 것으로, 민영구는 인수단의 일원으로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민영구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해군 지휘관으로서의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그는 전쟁기간 동안 부산경비부사령관·해군

본부 함정국장·서해전대 초대 사령 등을 역임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전쟁 초기 부산경비부사령관으로서 북한군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기여하였고, 부산으로 이동한 이승만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고 호송하는 임무도 맡았다. 또한 해군본부 함정국장으로서 함선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1951년 12월 23일부터 1952년 5월 4일까지 서해안 경비작전을 책임지는 서해전대의 초대 사령을 맡아 서해안 일대의 도서 방어·경비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민영구의 활약은 국군과 유엔군이 지상전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민영구는 해군사관학교 교장을 맡아 정예 해군 장교 양성을 책임졌다. 해군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체계의 개선과 보완에 심혈을 기울였고, 이론과 실습이 조화된 교육을 중요시 여겼다. 군기장 제도를 시행하여 사관생도로서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도 힘썼으며, 직접 생도들을 이끌고 순항 훈련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해군사관학교가 해군 장교 양성의 산실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민영구는 해방 이후 해군에 참여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였다. 해군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핵심 인적자원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지휘관으로서 역량과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위기에 빠진 조국을 지켜내고, 유능한 해군 장교를 양성해 낼 수 있었다.

민영구는 광복군에서 국군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민영구와 같은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필수적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군의 인적 정통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광복군과 오늘날 국군의 관계가 확고하게 정립되기를 기원해 본다.

〈참고문헌〉

1. 자료

『동아일보』.

민영구·이국영 모비문(국립서울현충원).

국가보훈처, 『영국의 6·25전쟁 참전사』, 2016.

G701:D-00106568057@N2M

국방군사연구소, 『UN軍支援助史』, 199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3·9·11, 2005~2013.

G901:A-0007296511@N2M

손규석·조성훈·김상원, 『6·25전쟁과 UN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G901:A-0006575046@N2M

이현희, 『한국독립운동증언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G901:A-0008354591@N2M

임성채·김용진·김희철·박기연,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12.

G701:B-00114464241@N2M

임성채·강병춘, 『대한민국 해군 창군사』,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16.

G901:A-0006617209@N2M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편찬위원회편,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2.

해군본부, 『해군일화집』 5, 1997.

G901:A-0008447839@N2M

해군사관학교, 『(大韓民國) 海軍士官學校史 ; 1946~1981』, 1981.

G901:A-0008429253@N2M

해군사관학교편,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2009.

G901:A-0006247264@N2M

해군사관학교박물관편, 『(탄신100주년) 손원일 제독 특별전 기념도록 :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 유품으로 보는 해군의 발자취』, 해군사관학교박물관, 2009.

G901:A-0006300533@N2M

2. 단행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통계자료집』, 2023.
G901:A-0011341869@N2M
- 오진근·임성채 공저, 『(해군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G701:B-00108696182@N2M
- 홍은혜 엮음, 『(손원일 제독 회고록) 우리들은 이 바다 위해』, 가인기획, 1990.
G701:B-00047865403@N2M
- 홍은혜, 『은혜의 향해 : ‘해군의 어머니’ 홍은혜의 인생이야기』, 토기장이, 2010.
G701:B-00089326620@N2M

3. 논문

- 김민호, “한국광복군 출신의 대한민국 국군 참여와 역할”, 『군사』 1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2.
<http://doi.org/10.29212/mh.2022..125.81>
- 김민호, “민영구의 在中獨立運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0,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2025.
I410-151-25-02-093178583@N2M
- 김보영, “유엔군의 해상봉쇄·도서점령과 NLL”, 『한국근현대사연구』 62, 2012.
UCI : G704-001258,2012..62.006
- 김윤미, “한국전쟁기 유엔군 군수사령부 편성과 부산항-1950년 해상물류시스템 구축 과정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70, 2022.
<http://doi.org/10.17949/jneac.1.70.202203.002>
- 김인승, “6·25전쟁기 서해 해상공방전(海上攻防戰)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90, 2019.
<http://doi.org/10.29004/jkmch.2019.9.90.147>
- 김종기, “한국전쟁시 해군 군사력의 투사”, 『戰史』 2, 국방군사연구소, 1999.
G901:A-0001535663@N2M
- 김중선, “한국 해군사관학교 교육과정 변천 분석”,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G901:A-0005361819@N2M
- 김주성, “미군정기 朝鮮民族青年團의 조직과 활동 : 미군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G901:A-0005870005@N2M

- 김주식, “해군의 창설과 발전”, 『군사』 6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http://doi.org/10.29212/mh.2008..68.209>
- 김준태, “開校二〇週年을 맞은 海軍士官學校”, 『해군』 152, 해군본부 정훈감실, 1966.
- 김재승, “愛國志士 閔泳政 船長의 中國上船에서의 活躍”, 『해양평론』, 전망, 2006.
G901:A-0002351392@N2M
- 신종태, “영국군의 한국전쟁 참전의의와 한·영 우호관계 증진 방안”, 『군사발전연구』 제12권 제2호 통권 18호, 2018.
- 이상호, “6·25전쟁 초기 전쟁 전략의 변화와 군수지원 체제의 구축”, 『군사』 1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
<http://doi.org/10.29212/mh.2023..128.217>
- 임성채, “6·25전쟁 전략이 한국 해군력에 미친 영향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G701:B-00092963864@N2M
- 이현진, “제1공화국기 美國의 對韓經濟援助政策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G901:A-0005235999@N2M
- 후지이 다케시, “족청·족청계의 이념과 활동”,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G901:A-0005570956@N2M

4. 증언

민중식, 2024년 11월 28일, 메일 인터뷰.

<Abstract>

Min Young-gu'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Navy and activities after liberation

Kim, Min-Ho

This article summarizes the activities and roles that Min Young-gu, a former member of the Korean Restoration Army, performed in the Korean Navy after liberation. From the process of returning to Korea in 1948 and joining the Navy, the activities of the Jinamho, Korea's first deep-sea fishing boat, the activities and roles performed in the Korean War, and the activities as the principal of the Naval Academy were examined. Through this, we tried to closely grasp the reality of Min Young-gu's activities in the Navy.

First of all, data that can grasp Min Young-gu's activities in the Navy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Memoirs, Naval Academy archives, Naval History Records Management Group archives, and Korean War history archives were referenced. These data contain a variety of information to prove Min Young-gu's activities. Information and facts that are not revealed through the data were supplemented through interviews with surviving sons.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understand in detail the activities and roles that Min Young-gu played in the Navy after liberation.

There is a special feature of independence activist Min Young-gu's activities after liberation. It is the only member

of the Korean Restoration Army who participated in the Navy. Min Young-gu was active in the Navy and served as the commander of the Busan Security Department, the ship director of the Navy Headquarters, the chief of operational staff, the command of the West Sea Battle Corps, the naval officer of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principal of the Naval Academy. It can be said that this is a person who shows legitimacy from the Korean Restoration Army to the Korean Armed Forces, adding to the specialness of Min young-gu.

Min Young-gu is a representative figure of legitimacy from the Korean Restoration Army to the Korean Armed Forces. It is essential to investigate and study figures such as Min Young-gu. This is because this is the basis for proving the human legitimacy of the Korean Armed Forces. Through this, we hop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Restoration Army and today's Korean Armde Forces will be clearly established.

Keywords : Min Young-gu, Korean Restoration Army, Korean Armde Forces, Legitimacy of Korean Armed Forces, The Republic of Korea Navy.